January
2012

아카렌가 통신

試される大地 北海道

No.24 VISIT TO KOREA www.pref.hokkaido.lg.jp

홋카이도 방문단 우호교류도시 방문

다카이 오사무 홋카이도부지사와 홋카이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홋카이도 방문단이 지난 11월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첫 방문지는 2005년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부산광역시로, 11월 16일 고윤환 행정부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다카이 부지사는 홋카이도는 대지진 피해에 의한 방사능의 영향이 없음을 알리고 홋카이도에도 방문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이에 고윤환 부시장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일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한 만큼,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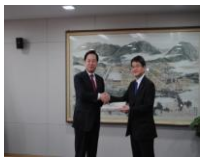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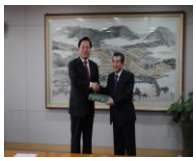
다카이 부지사(좌)와 부산광역시 고윤환 부시장(우)

양 지역은 지금까지 대학 간의 교류 (홋카이도대학과 부경대·동의대·한국해양대, 홋카이도교육대와 부산대, 삿포로가쿠인대학과 동아대) 필름커미션 교류 (삿포로시와 부산광역시가 영상산업발전을 위해 2008년각서 체결), 그리고 홋카이도 히다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경종마가 매년 부산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11월 17일에는 두 번째 방문지인 경상남도를 찾아 김두관 도지사를 방문했습니다. 양 지역이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지 5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이번 방문에서는 지금까지의 교류를 이어나감은 물론 아직 교류가 없는 분야를 개척해 더욱 활발한 교류가 되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근 들어 양 지역 간에 이루어진 교류로는 2010년 홋카이도 주최 자매우호지역 대표자회의에 경상남도 국제통상과장 일행이 방문, 2010년 11월 철갑상어 연구자가 홋카이도 방문, 홋카이도 관광광진흥기구와 경상남도 관광협회 간의 시찰투어 등이 있습니다.

홋카이도 방문단과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청 앞)



(좌) 김두관 경상남도지사와 다카이 홋카이도 부지사
(우) 김두관 경상남도지사와 가와지리 일한우호 홋카이도의회 의원연맹 회장

11월 19일에는 서울특별시를 찾아 김상범 행정 제1부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 부지사는 양 지역이 앞으로 더욱 활발한 교류를 위해 직원간의 협의가 성사되길 부탁했고,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사카모토 회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간의 교류에도 힘써주길 부탁했습니다. 또한 이날 박원순 시장에게 보내는 홋카이도지사의 친서도 전달되었습니다.

양 지역 간에는 교류를 시작한 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마라톤교류, 소년야구교류, 삿포로컬렉션에 서울 패션업계 관계자를 초빙, 그리고 서울 홋카이도 친선교류협회로부터 동일본 대지진 재해 의연금을 건네받아 재해 지역의 어린이들을 삿포로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시합에 초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김상범 부시장(좌)과 다카이 부지사(우)

홋카이도 관광상담회·음식 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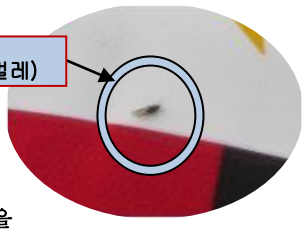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홋카이도를 찾는 한국관광객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홋카이도의 안전과 매력있는 관광자원을 PR하기 위해 지난 11월 16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관광상담회가, 11월 18일에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관광상담회와 여행페어, 음식의 매력 프레젠테이션이 개최되었습니다.

여행페어 테이프 커팅식

여행페어에는 홋카이도 거주 경험이 있는 코미디언 강남영의 홋카이도 매력에 대한 토크쇼와 퀴즈대회, 추첨회 등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매력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오타루 상과대학 이재민 교수의 강연과 이정림 요리연구가의 부타동(돼지고기 덮밥)과 버터감자 전병의 실연이 있었습니다. 또한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음식인 털게찜, 스프카레, 가리비구이, 치즈케익과 와인 등의 시식회도 열렸습니다.

이재민 교수의 강연

홋카이도의 겨울 진풍경



◆◇ 유키무시 (雪虫 눈벌레) 가 나타나면 첫눈이 내린다?

홋카이도에서는 겨울의 추위가 시작될 무렵이면 공원이나 들판에서 마치 하얀 눈가루가 날리는 듯한 풍경이 군데군데 눈의 띄는데 이런 풍경이 보이면 곧 첫눈이 내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눈가루처럼 보이는 것의 정체는 바로 유키무시(雪虫눈벌레)입니다. 정식 명칭이 '도도노네오오와타무시'인 유키무시는 진디 가운데 백선물질을 분비하는 샘을 가진 것의 통칭을 일컫습니다. 길이 약 5mm로 몸 전체가 솜으로 둘러싸여 있는 유키무시는 분비나무 뿌리의 진을 빨아먹으며 생활하다 첫눈이 내리기 수주전부터 야치다모라는 나무로 일제히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이동하는 모습이 바로 눈가루가 날리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유키무시가 첫눈을 예고할 수 있는 것은 온도변화와 낮 길이의 변화, 먹이인 도도마츠 양분의 변화를 통해 감지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키무시는 열과 사람의 체온에 약하며 야치다모로 이동 후에는 산란을 하고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블랙 아이스반

유키무시 과자?!
1949년 창업한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제과회사 모리모토에서 겨울한정 판매중인 유키무시 스플레~
부드러운 빵과 입에서 녹는 치즈크림의 조화가 환상적인 맛~

미끄럼주의!
압설 아이스반

◆◇ 설국 홋카이도를 즐기려면 그 전에 주의사항을 필독!!!

겨울에 홋카이도를 찾는다면 주의해야 할 것 2가지! 바로 블랙 아이스반과 압설(圧雪) 아이스반입니다. 블랙 아이스반이란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도로상의 물기가 언 것을 뜻하는데, 특히 눈이 내렸다 녹은 상태 그대로 어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이스반이란 용어는 스케이트 링크를 의미하는 독일어로 도로의 색이 검기에 블랙 아이스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블랙 아이스반은 얼핏 보기에는 단지 도로가 젖어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방심하기 쉬우므로 렌트카로 홋카이도를 관광한다면 특히 조심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압설 아이스반이란 인도나 도로에 쌓인 눈이 차량의 통행과 통행자에 의해 압력을 받아 딱딱해지며 미끌미끌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며 이런 길을 걸을 때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의 신비로움, 유빙의 향연의 장 「오호츠크해」

홋카이도의 동쪽 지역에 면해 있는 오호츠크해에는 매년 겨울이 되면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얼음조각인 유빙이 밀려와 그 모습이 장관을 이룹니다. 이는 12 월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을 흐르는 아무르강 하구에서 형성된 유빙이 조류를 타고 떠 내려오는 것으로 1 월 말부터 3 월 초까지 유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바시리항에서 운항 중인 '오로라호'

유빙을 가까이에서 보려면 배 밑에 달린 스크류로 유빙을 부수며 전진하는 쇄빙선을 이용하면 되는데, 몬베쓰항과 아바시리항에서 운항되고 있습니다. 몬베쓰항에서 운항 중인 쇄빙선은 '가린코호'로 알라스카 유전개발용으로 시험적으로 만들어진 쇄빙선입니다. 새빨간 몸체와 2 개의 아르키메디언 스크류가 특징인 가린코호는 홋카이도 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바시리항에서도 '오로라호'가 운항중이며, 이 아바시리 지역은 오호츠크 지역 중 유빙을 볼 수 있는 최남단의 지역입니다.

노롯코 열차의 또다른 재미 하나. 어린시절을 회상하게 하는 난로에 구워먹는 오징어~

유빙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으로는 노롯코 열차가 있습니다. 느리다는 의미를 가진 일본어 '노로노로'에서 유래된 이 노롯코 열차는 시레토코와 아바시리를 왕복하는 열차로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유빙의 세상은 환상 그 자체입니다.

유빙을 대표하는 이 오호츠크 지역은 홋카이도 면적의 12.8%를 차지하며 인구는 32 만 명으로 18 개의 시초손이 있습니다. 농지와 삼림지가 홋카이도 전체의 14%를 차지하며 농업과 임업이 주된 산업입니다. 양파, 보리, 사탕무, 감자 생산량이 전국 1 위를 차지하며 어업과 관광업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리비조개와 연어의 가공식품도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빙 정보 → 유빙과학센터 GIZA http://giza-ryuhyo.com/ryuhyoinfo/ryuhyotop.html

오호츠크 지역에 가면 이것도 즐기자~!

유빙을 볼 수 있는 시기에만 삿포로-아바시리 간 '유빙특급 오호츠크의 바람' 이라는 리조트열차가 일시적으로 운행됩니다. 일반 열차보다 공간도 넓고 천정으로도 창문이 뚫려 있어 개방감 넘치는, 마치 리조트에서 쉬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 기간 한정 열차는 오호츠크 지역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 줄 것입니다.

유빙 특별열차

유빙을 관찰할 수 있는 기간에 맞춰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볼거리는 '시레토코 오로라 환타지아'. 과거 시레토코 밤하늘에 나타났던 진짜 오오로라를 레이저 광선과 음향으로 재현한 환상적인 쇼로 매일 밤 8 시에 열립니다.

유빙을 보러 아바시리를 찾는다면 '아바시리 장기동'을, 몬베쓰를 찾는다면 '가마보코'를 맛보세요. 보통 '장기동'이라 하면 닭 닭튀김이 얹어져 있는 덮밥을 말하지만 아바시리는에서는 닭 대신 연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곳의 명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마보코는 우리나라의 어묵을 뜻합니다.

위>아바시리 장기동
옆>가마보코(어묵)

오로라 환타지아

< 기타미시 도코로초(北見市常呂町) 실내 컬링경기장 >

홋카이도에 컬링(얼음판에서 둥그런 돌을 미끄러뜨려 골에 넣어 득점을 다투는 경기) 이라는 스포츠가 알려지게 된 것은 1977 년 캐나다 앨버타주와 문화교류 사업으로 컬링이 홋카이도에 소개된 것이 계기가 됩니다. 이후 점점 컬링이 알려지면서 1988 년 일본 최초 실내 컬링장이 기타미시 도코로초에 세워지게 됩니다. 컬링장이 생긴 후 선수들의 경기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게 되었고, 1998 년 나가노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하여 홋카이도 출신의 선수들이 국내외 경기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후세에게 전해줄 보물

홋카이도 유산

그 열한 번째 이야기

홋카이도 각 지역

❀ 둔전병 마을과 병사

둔전병은 1875 년 삿포로 고토니(琴似)마을에서 시작되어 홋카이도 개척과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1899 년 홋카이도 각지에 37 곳의 병사 마을이 세워졌습니다. 현재도 그 당시의 행정구획이 남아있고 중대본부의 건물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 홋카이도의 말 문화

홋카이도 말의 역사는 홋카이도 개척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홋카이도 개척의 노동력으로서 시작된 말의 보급은 말이 끄는 짐썰매 경주인 '반에이 경마'로 이어졌고, 히다카의 목장에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우수한 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둔전병 마을과 병사

홋카이도의 말

❀ 아이누어 지명

홋카이도 지명의 약 80%가 아이누어에서 유래합니다. 아이누어 지명은 낯선 장소에서도 그 이름으로부터 지형이나 위치를 알 수 있으며, 아이누어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누 문양

아이누 문양의 기본은 '소용돌이 무늬', '가시 무늬', '비늘무늬' 의 세가지 종류로 이것들을 조합하여 연속된 선으로 이어갑니다. 그 형상과 도안, 색채는 미적가치는 물론, 문화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이누어 지명

아이누 문양

❀ 아이누 구전문예

아이누 구전문예에는 영웅서사시, 신화, 산문설화 등이 있습니다. '사코로베', '유카라'라 불리는 영웅서사시는 짧은 멜로디를 반복하며 하늘을 나는 등의 초인적인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웅대한 스토리입니다.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는 홋카이도청 국제과 한국어 홈페이지 http://www.pref.hokkaido.lg.jp/foreign/korean.ht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홋카이도 관광 정보는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홈페이지 http://hokkaido.japanpr.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발행: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지사실 국제과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 3 条西 6 丁目 TEL : +81－11－204-5114 FAX : +81－11－232-4303)